『文章論新講』의 특징과 글쓰기 교육론

곽 명 숙*

≪目　次≫

1. 서론
2. 근대적 작문론의 전개와 『문장론신강』의 학술적 글쓰기
3. 과학적 학문의 수용과 언어의 두 가지 임무
4. 글쓰기 교육의 방도 : 인격과 훈련
5. 결론

1. 서론

최근 근대형성기 및 일제강점기를 대상으로 하여 '글쓰기'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어문생활의 양상이나 그와 관련된 텍스트들을 고찰함으로써 근대로의 전환 과정에 대한 다각적인 시선을 제공하고 있다.[1] 근대로의 이행과 더불어 절대적 조건으로 여겼던 '言文一致' 에 대한 재논의, 日帝의 조선어 말살 정책에 대하여 대항적 의미에서만 강조되었던 朝鮮語 語文運動 등에 대한 미시적 고찰 등이 이러한 연구의 성과라고 할 것이다. 국어학 연구나 국문학 연구에서 주류 텍스트로 여겨지지 못했던 문학자들의 讀本류도 문학어에 대한 의식을 통해 어문 차원의 미시적인 근대성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로 부상하였다.[2] 독본류는 크게 작문론과 문학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김억, 이태준, 김기림, 양주동, 정지용, 김기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1) 1910~1920년대의 한국어 연구와 언어 정책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병근 외, 2007 『일제 식민지 시기 한국의 언어와 문화』, 서울대 출판부. 학위 논문들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근대적 작문론의 형성 과정과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바 있다. 배수찬, 2006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 과정 연구: 논설문 쓰기의 성립 환경과 문장 모델을 중심으로」, 서울대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 이정찬, 2006 「근대 전환기 작문론 연구」, 서울대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2) 문학자들의 독본에 대한 연구는 대개 문학 중심의 독본이 중심에 놓여 있다. 구자황, 2004 「독본을 통해 본 근대적 텍스트의 형성과 변화」 『상허학보』13 ; 문혜윤, 2008 『문학어의 근대: 조선어로 글을 쓴다는 것』, 소명출판.

림과 같은 문학자들의 것이 널리 읽혔다. 이 가운데 작문론은 일반적으로 '文章論'이라는 명칭으로 발간되었다.

오늘날의 문법적인 의미와 다르게 이러한 문장론은 作文과 관련된 槪念, 知識, 用法, 理論 등을 說明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쓰기와 관련된 思想을 피력하는 논의까지 포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文章은 일반적으로 글 전체를 의미해 왔다.[3] 또한 문장은 '문구(sentence)'와 '구문(paragraph)'과 같은 언어학적인 표현 단위를 지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文體(style)' 및 '文彩'를 포함하여 일컬을 수 있는 다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文章論은 作文法이나 修辭法에 대한 이론적 체계와 더불어 글쓰기에 대한 敎育思想과 文人意識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글쓰기와 관련된 독본류들이 '문장'이라는 용어를 즐겨 쓴 까닭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개념과 용법에서 비롯된바가 큰 것이다.

문학자들의 문장론은 글을 쓰는 태도와 과정, 수사법의 유형, 각종 양식의 글에 관한 작문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 1940년대 간행된 이태준의 『文章講話』의 경우 개화기 이래 신문학 운동으로부터 비롯된 우리말 글쓰기에 대한 양상과 인식을 규범화하고 종합한 것으로 해방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읽힌 저작이다.[4] 이 책은 오랫동안 한국어 문장을 짓거나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학생, 작가지망생들에게 중요한 지침서로 널리 인용되었으며, 이태준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참조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문학자들의 문장론에서는 공통적으로 근대적 작문론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언문일치'와 관련되어 개성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이 강조된다. 이처럼 당대의 어문 의식을 어느 정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학자들의 문장론과 독본류는 글쓰기라는 문자적 생산 활동에 대한 문학자로서의 체계적인 해명 작업인 셈이다.

같은 문학자로서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평론가이자 시인이었던 김기림의 『文章論新講』(1950)은 뒤늦게 이태준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주목받았다. 이태준과 김기림은 소설가와 시인 평론가, 古典지향과 西歐지향이라는 점에서 대별되며, 각각의 문장론에서도 대조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해방 전에 발간된 이태준의 『문장강화』가 이광수, 이상 등 우리말 작가의 생동감 있는 글을 경험적으로 지향했다면, 해방 이후 발간된 김기림의 『문장론신강』은 카르납과 리처즈 등 서구의 수사학을 앞세워 이론적인 구상을 전개해 나갔다.

두 사람의 언어 의식과 문장론은 김윤식에 의해 각각 '민족어'와 '인공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 바 있다.[5] 이 개념은 위에 열거한 차이점과 그들이 처했던 언어상황과 지향점을 다소 직관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분석적인 접근은 박성창의 수사학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태준이 표현의 수사학 중심이라면 김기림은 의사소통의 수사학을 강조하고 있

3) "문장(文章)이란 언어의 기록이다. 언어를 문자로 표현한 것이다." 이태준, 1988 『문장강화』, 창작과비평사, 11면.

4) 천정환, 1998 「이태준의 소설론과 『문장강화』에 대한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6, 182면.

5) 김윤식, 1999 「민족어와 인공어」 『한국근대문학연구방법입문』, 서울대학교출판부.

다고 분석하였다.[6] 그 후 이태준의 『문장강화』는 전통주의, 미문의식 등의 특징이 글쓰기 의식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분석된 것[7]에 비해 김기림의 『문장론신강』은 수사학적 범위 내에서 접근되었다. 김기림이 주로 기대고 있는 리처즈의 수사학과 비교하는 논의, 그의 문장론의 주요 내용인 설득과 소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8] 이러한 수사학적 논의는 김기림의 문장론에 대한 내적 이해를 통해 박래품적인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방 공간의 정치 문화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임을 밝혀주었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이 연구는 김기림의 문장론이 해방 이후 우리말로 학문하기의 첫 발걸음을 떼는 단계에서 대학 교양 교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의 문장론이 갖고 있는 현재적 의미와 여타의 독본류에 대비하여 갖는 변별성이 교양 교육으로서의 글쓰기라는 목표와 실천 의식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문장론은 근대적 글쓰기의 전개 과정에서 특히 학술적 글쓰기의 분화와 요청 단계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 근대적 작문론의 전개와 『문장론신강』의 학술적 글쓰기

근대로의 전환기에 등장한 문장법 서적으로는 개화기 때 나온 최재학의 『실지응용작문법(實地應用作文文法)』(1909)과 이종린의 『문장체법(文章體法)』(1913), 이각종의 『실용작문법(實用作文法)』(1917), 강매의 『중등조선어작문』(1928) 등을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이정찬은 식민지 시대 작문에 대한 담론을 전통지향적 작문론과 서구중심적 작문론으로 대별시켜 본 바 있다.[9] 이러한 작문론에서 크게 중심이 된 것은 첫째 '文'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작문 주체로서 '개인'이 강조된 점, 둘째, 전통적 작문법의 '句法'을 대신하여 일본을 매개로 한 서구의 수사법이 부각되었다는 점, 셋째 형식적 구성 방식이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즉 서론, 본론, 결론과 같은 단락간의 관계 속에서 의미의 흐름이 실현되는 형식이 강조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작문론을 통해 서구의 작문론은 오늘날의 작문 교육이 바탕으로 삼고 있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대적인 작문론의 전개 흐름 속에서, 소설가로서의 감각을 지니고 있던 이태준이 1940년대 『문장강화』를 통해 언어의 심미성을 강조하며 미문 중심의 글쓰기를 확산시키는 데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

6) 박성창, 2005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김기림과 이태준의 문장론 비교」 『한국현대문학연구』18.
7) 배개화, 2004 「<문장강화>에 나타난 문장 의식」 『한국현대문학연구』16 ; 박진숙, 2004 「이태준의 언어 의식」 『상허학보』13.
8) 이미순, 2007 「『문장론신강』에 대한 수사학적 연구」 『김기림의 시론과 수사학』, 푸른사상사.
9) 이정찬, 앞의 논문 참고.

해방 이후 여러 종의 문장론과 독본류들이 출간되며 우리말 쓰기와 읽기에 대한 수요가 점증했음을 보여준다. 이태준의 『문장강화』의 증정판(1947)이 나온 것을 비롯해, 이윤재(1945), 양주동(1948), 정지용(1948), 이광수(1948) 등이 책을 펴냈고, 대한문장연구회 편의 『문장작법』(1952)도 나왔다. 이러한 서적의 대부분은 수사법(figure of speech)의 유형과 문학적 표현을 중심으로 기술되었고, 글의 유형을 나누는 데 있어서 수필·서간·일기·기사문 등을 설정하고 있다. 논문이라고 언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학술문이라기보다는 수필에 가까웠다. 그러한 점에서 김기림의 『문장론신강』은 해방 이후 증대된 작문 교육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대학이라는 교육 제도의 수준에 부합하는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요구도 충족시키려 한 점에서 여타의 문장론에 비해 독보적인 수준의 것이었다.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을 이끈 대표적인 평론가이자 시인이었던 김기림의 이력에는 두 차례의 일본 유학을 통해 영문학을 수학하고 온 조선일보 학예부 기자라는 학문적 역량과 문화적 지위가 든든히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해방 이전 해박한 영어 실력과 탁월한 글 솜씨로 이론적 풍부함과 분석적 날카로움을 드러내는 평론들로 문단의 중심인물로 활약했었고,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의 강단에 서게 되었다. 그러한 사정 속에서 『과학 개론』, 『문학 개론』, 『시의 이해』와 같이 강의에 사용될 책들을 번역하거나 저술한다. 『문장론신강(文章論新講)』(민중서관, 1950. 4.)도 그러한 사정 속에 출간된 책이다.

이러한 저서들은 해방 이후 우리말로 학문하는 첫 세대를 위한 교양 학술 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어'가 아닌 '국어'로서 한글이 자기 위상을 되찾고, 일본어가 아닌 한글로 공적 학술적 문서들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의 요청에 따른 교재였던 것이다. 김기림이 문장론에 심혈을 기울인 배경에는 해방 후 한글의 통합과 함께 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문장론신강』에는 대학의 글쓰기 교재로서 갖추어야 할 양식과 체제가 처음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 책에는 인용 출처를 밝히는 미주가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참고문헌과 인덱스가 갖춰져 있다. 기존의 국문 작문 교재라든가 이태준의 『문장강화』에서 볼 수 없는 전문적으로 분화된 작문, 즉 학술적 글쓰기를 염두에 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학술적 글쓰기(academic writing)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형식과 유형을 갖추고 대상이나 주제에 대한 세밀하게 탐구된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적 의견이나 주장을 진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10] 이를 위해 학술적 글쓰기의 전형은 객관적인 문장으로, 화제의 의미에 대해 명료하게 진술하고, 논리적으로 적합한 세목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다른 학자들이 그 결과에 대해 검증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장론 신강』은 이러한 학술적 글쓰기가 지향해야 하는 정신과 목표를 그에 필요한

10) 학술적 글쓰기는 오늘날 대학이라는 교육 제도와 분리해서 생각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의 교양 과정 이수 및 학문 연구 일반에 있어서 행해지는 글쓰기"로서 학술적 글쓰기를 규정한 석주연의 정의는 대학 교양 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가장 일반화될 수 있는 정의가 될 것이다. 석주연, 2005 「학술적 글쓰기의 평가에 대한 일고찰」 『어문연구』125, 493~494면 참고.

형식을 갖추어서 말하고 있는 본격적인 작문론이다.

한편 구성과 기술 방법 면에서도 이태준의 『문장강화』가 신문학 성립 이래로 빼어난 문학 작품들에게 예문을 취했다면, 『문장론신강』은 서구의 서적과 이론을 앞세운 체계를 차려 대조가 되었다. 그 탓에 김기림의 문장론은 예증이 빈약한 채 언어철학에 근거한 이론만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즉 그가 리처즈의 수사학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이론적인 지식의 나열로 만족해야 했으며, 한국어의 특질을 반영한 실제 문장의 인용이나 분석을 등한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1] 그러나 김기림의 주장을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민족국가의 건설과 국어의 정립이라는 과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수사학, 상호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가르칠 수 있는 수사학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여기에 리처즈의 수사학이나 언어이론이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해야 한다.[12]

『문장론신강』의 참고문헌에는 리처즈 외에도 아리스토텔레스와 소쉬르, 비트겐슈타인을 비롯한 27명의 저작이 나오고 있으며, 다소 기계적인 논거이겠으나 381쪽에 달하는 책의 분량도 그의 수고를 짐작케 한다. 그가 신문에 투고했던 한자 문제와 관련된 문체론, 우리말 운동, 어문일치 등에 관한 원고를 재수록한 부록 165쪽을 뺀 본문의 분량도 209쪽에 달해, 1946년에 나온 『문학 개론』이 127쪽에 그친 것에 비교한다면 적은 분량은 아니다. 한 면에 들어간 글자수를 고려하여 보면 『문장론신강』이 200자 원고지로 김기림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저술인 『문학개론』보다 65.6장 정도 더 많다. 『문장론신강』은 김기림이 가지고 있던 글쓰기의 여러 국면에 대한 지식과 의견이 총망라된 저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기림의 문장론이 다른 문장론에 비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정리하여 살펴보겠다. 첫째, 문어와 더불어 구어의 문제까지 총괄되어 있는 것이다. 기존의 문장론들에서도 '구어'의 문제나 '언문일치'는 중요한 관심사였지만, 『문장론신강』에서는 '말(spoken language)'과 '글(written language)'이 각각 장으로 구분되어 동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기림은 문화란 "대중의 생활에 뿌리박고" 있어야 하고, "문화의 보존 또는 전파를 위한 가장 큰 방편은 말"[13]이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말'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일차적인 의사표현의 도구로서의 언어를 아우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문장론신강』의 1부는 '말'의 기원과 종류, 양태까지 상술하는 데 할애되고 있다. '글'을 논하기에 앞서 자신의 문장론이 언어학적 기능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김기림의 문장론은 이론적 전제에 따라 실천으로 나아가는 체계에 따름으로써 다른 문장론과 다르게 '말'을 상당한 분량과 체계성을 갖추어 다루고 있다.

---

11) 이재선, 1967 「문장론 성립에 있어서의 서구의 영향: 김기림과 리차즈」 『어문학』17.

12) 박성창, 2007 「근대 이후 서구수사학 수용에 관한 고찰: 김기림과 I. A. 리차즈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41, 한국비교문학회

13) 김기림, 1948 「새 문체의 요망」 『자유신문』 ; 1950 『문장론신강』, 민중서관, 215면.

둘째, 고답적인 한문투의 서술을 벗어난 학술적 글쓰기 자체를 스스로가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여러 철학자와 언어학자들을 인용하면서도 어려운 한자나 한문투를 피해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그 개념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이 책이 의도한 또 하나 여벌이라고도 할 효과"[14]였던 것이다. 까다로운 한자와 한문투를 두고 "학문의 위풍을 떨어보려는 속없는 허장성세"라고 비판하고 높은 진리일수록 쉬운 말과 글로 나타나야 하며 그것이 말과 글의 극치라고 강조했던 자신의 주장을 실천하고자 했다. 서지사항을 불충분하게 적고 있지만 약식 부호(Ibid., op. cit. 등)을 포함한 서양식의 주석 방식을 취하고 있다.

> 불란서 사회학파(社會學派)의 거장 『방드리쓰』(Vendryes)는 이렇게 말하였다.
> 『말의 진화는 직접 역사적 정황에 의존하는 것이다. 말의 진화와, 그것이 통해오는 사회적 조건 사이에는 분명한 관계가 있다.(생략)』①[15]
>
> 주
>
> ① Vendryes, Language (Eng. ed). pp. 352-353.[16]

김기림이 1946년에 출간한 『문학개론』과 1947년에 낸 『시론』은 신문과 잡지의 기고글들을 모은 형태였기에 주석이 없었다. 반면에 『문장론신강』과 같은 달에 나온 『시의 이해』(을유문화사, 1950. 4. 10)는 주석과 참고문헌 양식을 지키고 있다. 그가 언급한 많은 철학자와 언어학자에 대한 재인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1950년 김기림이 학술적 형식성에 대한 뚜렷한 자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시의 이해』 서문에서도 김기림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또 저자는 일부러 한글만으로 이 책을 쓰기로 했다. 이 정도의 학술논문이면 한글만으로 씀으로 과연 얼마만한 득실이 있나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다.[17]

우리말로 학문한다는 것의 가능성을 스스로 실험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문장론신강』의 머리말에서 밝혔던바, "여벌의 효과"의 실천인 것이다.

셋째, 진리와 그것의 정확한 전달을 강조하였다. 이태준 등의 기존 문장론에서 '개성'과 자기 표현을 강조한 것[18]과 대비되어, 김기림은 말의 수사적 꾸밈이나 치장이 아닌 충실한 의미의 전

14) 김기림, 1950 『문장론신강』, 민중서관, 머리말, 3면.
15) 위의 책, 28면.
16) 위의 책, 31면.
17) 김기림, 1950 『시의 이해』, 을유문화사, 머리말.
18) 이태준의 경우 새로운 문장작법의 조건을 말하면서, 마음과 감정에 가까운 말을 짓도록 할 것, 개인적인

달을 강조하였다. 그 진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단순한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이해와 해석을 거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기림이 근대 신학문의 성립 이래로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개성' 대신에 '진리'를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1930년대부터 그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리처즈의 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리처즈가 "과거의 수사학이 주로 자기 주장을 하는 유력한 방법 즉 표현(表現)의 기교(技巧)에 주력"한 것을 비판하고 "표현의 가장 바른 해석"을 수사학의 임무로 생각했던 노선을 김기림이 따라갔던 것이다.[19]

표현의 수사학에서 벗어남으로써 김기림은 학술적 글쓰기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과학 논문에 대한 논의를 담을 수 있었다. 말과 글의 형태에 따라 記述, 描寫, 形而上學, 假像과 典型 등이 나뉘어 있는데, 記述에는 '과학어(科學語)'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記述'은 사물과 사물의 관계(거시적 세계의 인과율의 관계와 미시적 세계의 확률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말로 옮기는 것이고, 說明은 어떤 포괄적인 법칙을 전제로 하고 어떤 사물이나 사태를 그 전제에 비추어 법칙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풀이되어 있다.[20] 김기림은 그 용어들은 定義를 거쳐 '一意性'을 유지해야 하며, 술어들이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과학 논문의 진술이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성격과 요건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이론과 실천의 체계에 따라 새로운 수사학과 그 교육적 방향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1부 이론편에서 말의 기원과 힘, 말과 글, 의미론 상의 낱말 및 문맥, 말의 기능을 살펴보고, 2부 실천편에서 말과 글의 대상, 말과 글의 형태, 구상과 구조, 기술 방법, 宣傳의 기술, 글의 해석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말과 글을 형식의 면에서 정태적으로 보지 않고, 기능의 면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태(動態)로서 보려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1부와 2부 모두 의사소통 작용에서 중요한 '文脈context'과 '機能function'의 개념이 대응되게 다루어지며 구체적인 진술 방법과 장르들에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른 문장론과 비교했을 때 이론적 전거를 충분히 밝히며 자신의 사상을 체계화시킨 작문 철학과 그 응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김기림이 가지고 있는 언어철학이나 수사학에 대한 이론적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적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문장론신강』은 근대적 글쓰기에 대한 의식의 단계에서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분화된 작문론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감정과 사상을 표현할 것, 새로운 용어와 문체를 가질 것 등을 주장하였다. 이태준, 앞의 책, 21~23면.

19) 김기림, 앞의 책, 20면.

20) 위의 책, 126~127면.

3. 과학적 학문의 수용과 언어의 두 가지 임무

김기림이 표현 위주의 전대의 수사학을 비판하고 새로운 수사학을 내세울 수 있었던 배경에 이보 암스트롱 리처즈(Ivor Armstrong Richards, 1893~1979)의 의의학(Semasiology, Semantics)이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21] 『문장론신강』에서 김기림은 서문과 이론편에서 리처즈의 의의학을 소개하고 리처즈가 기호와 지시대상의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한 삼각형 도식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리처즈의 기본적인 주장은 말이란 상징 혹은 기호이며, 기호란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의미란 기호 그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며, 기호의 지시 대상은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기에, 해석자는 맥락 안에서 그 기호를 이해해야 한다. 김기림의 『문장론신강』은 전체 체계와 면면들에서 이러한 주장을 일관되게 지키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논지와 틀은 리처즈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고 하여도 김기림의 독자적인 해석과 식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1950년 무렵 김기림은 1930년대부터 압도적인 영향을 받았던 리처즈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시의 이해』에서 그가 리처즈의 「비평의 원리」를 교과서적으로 소개하면서도 비판적인 소견을 덧붙이고 있는 것처럼, 『문장론신강』도 전적으로 리처즈의 이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22]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김기림과 리처즈와의 깊이있는 비교 연구가 보충되어야 하겠지만, 외견상 보았을 때에도 『문장론신강』은 리처즈의 저술 외에도 여러 철학과 언어이론을 상술하면서 자신의 체계에 흡수하여 조직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례로 이론편의 첫 장인 '말이란 어떤 것인가'에서 말의 기원과 힘에 관한 부분은 리처즈의 저술과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범위와 내용으로 전개된다. 김기림이 말의 기원과 힘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원시사회에서부터 소원, 간청, 경고, 주문에 담긴 말의 위력을 발견하게 된 후, 기도, 속담, 웅변 등이 발달했고, 오늘날 '과학'에서 말의 힘이 가장 요긴하다는 것이다. 말의 힘이 '과학'의 힘으로 귀결되는 역사적 발전 논리는 김기림의 과학적 세계관의 일부를 엿보이는 부분이자, 이 책의 전반에 걸쳐 전개되는 '과학'에 놓인 무게중심을 예고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연환경을 지배하고 사회환경을 통어할 수 있는 것이 과학의 힘 때문이며, 그 과학이 표현하는 말의 힘이 없다면 대상 세계에 대한 기술이나 일반화 등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

21) 김기림이 리처즈의 『문예비평의 이론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1924), 리처즈와 오그던(C. K. Ogden)의 공저 『의미의 의미 The meaning of meaning』(1923), 리처즈의 『수사학의 철학 The philosophy of rhetoric』(1936)을 주되게 원용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국내 번역은 다음과 같다. 리처즈(김영수 역), 1981 『문학비평의 원리』, 현암사 ; 리처즈(이선주 역), 2005 『문학비평의 원리』, 동인. 리처즈·오그던(Richards & Ogden), 1987 『의미의 의미』(김영수 역), 현암사. 리처즈(박우수 역), 2001 『수사학의 철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22) 김기림의 과학적 시학과 리처즈의 관계에 대한 세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김유중, 1996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세계관과 역사 의식』, 태학사.

한편으로 김기림은 과학의 상대편에 '情'의 세계를 놓아 균형을 잡는다. 과학이 객관의 세계를 기술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지배한다면, 정의 세계를 조절하고 인생 전체에 대한 통찰을 위해서는 문학이 필요하며, 현대에 와서 말이 가장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선전(Propaganda)이라는 것이다.

'말'의 기원, 힘에 이어 나온 '말의 마술'에서 김기림의 주장은 리처즈의 저술과 미묘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 장은 미개사회 원시인의 심리에 나타나는 '파르티시파시옹(참여)의 법칙'과 마술성을 설명하고, 이로부터 말이 빠져나와 말의 현실적인 힘과 논리성을 활용하게 되었음을 역설한다. 즉 고대 그리스로부터 로고스라는 말이 보여주듯 말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한편 말에 대한 미신은 차츰 뒤로 몰려가고 그 대신 말의 현실적인 힘이 활용된 것이다. 웅변은 신전에서 나와서, 정치적 자유를 부르짖는 무기로 변했고, 변증법은 「헤겔」 이후 오늘에 와서는 딴 의미로 쓰이지마는 「희랍」 사람들에게는 (특히 「소크라테스」에게는) 말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말은 신을 설복하는 허망한 일에서 해제되어 진리를 찾아내는 성스러운 길로 들어선 것이다.[23]

말에 대한 미신으로부터 인간이 자유로워졌다는 위의 설명은, 마치 베버가 근대를 '탈주술화'의 과정으로 지칭한 것처럼 말도 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진리를 향한 길에 안착하였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리처즈가 말한 '말의 힘'은 그처럼 손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대가 원시 시대 보다 낙관적인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었다. 리처즈와 오그던은 보통 사람들이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언어에 대한 사유의 습관을 지적한다. 현대인들은 원시인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관한 미망을 비웃지만, 사실 현대인도 언어 그 자체가 실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미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24] 김기림이 마치 미신으로부터 해방된 선구자인 듯이 언급하는 그리스인들은 리처즈에게서는 오늘날 현대 논리학의 문제점을 훨씬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단순화된 사례였다.

> 현대 논리학자는 매우 교묘하게 자기 학설 체계의 언어적 기초를 숨기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 기초가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스 저술가들은 원시 언어 마술의 유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사물을 분류하는 것은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며, 하나의 사물 또는 사물의 집합의 이름은 마술의 생명이다. 사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바로 사물의 영을 지배하는 것이었다. 인간에 관한 것이나 초인간적인 것은 무엇 하나 말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언어 그 자체는 실재의 전체 구조의 모사며, 그림자의 영이었다. 그리하여 로고스Logos—지고한 실재, 즉 신성한 영

23) 김기림, 앞의 책, 38면.
24) 리처즈·오그던, 앞의 책, 2장 참조.

> 적 실체, 만물의 <의미> 또는 이성, 혹은 이름의 <의미> 또는 본질 등으로 다양하게 생각된 의 교의가 생겨났다.[25]

그리스의 로고스가 원시 언어의 마술성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며, 그리스인들도 언어가 실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본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로고스라는 개념을 통해 언어는 실재나 실체에 대한 의미와 본질이라는 더 강력한 '교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리처즈와 오그던은 의미가 원래 단어나 기호 그 자체에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것은 미신이며, 말은 상징 혹은 해석이 필요한 기호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현대 언어학에서는 기초적인 상식과도 같은 내용이 될 터인데, 그에 따라 언어는 지시 대상을 상징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의미 결정에 있어서 맥락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기림은 리처즈의 수사학을 따르고 있으나 언어가 실재와 어긋나거나 맥락 속에서 기만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총체적으로 회의하지는 않는다. 김기림의 문장론에서 일종의 '투명성', '미래 지향형의 낙관주의'[26]라고 부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김기림은 서구의 분석적이고 기능적인 언어이론이 내세운, 실속과 효율을 말과 글의 최고 목표로 상정하고, 이것에 한국어도 동일한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서구 자신이 오랜 철학과 사상에 대해 품고 있는 언어적 회의에 대해서는 눈감고, 언어가 객관적인 실재를 정확하게 가리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진리의 전달을 목표로 한 수사학, 전달과 소통의 맥락을 강조하는 해석 위주의 수사학을 위해 김기림은 '정확성'을 흔들림없는 초석으로 삼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말에 있어 의미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김기림의 의도는 리처드에게서 빌어온, 기호–생각–지시대상으로 이어진 삼각형 그림의 해석 맥락을 다소 변형시킨다. 이 삼각형 그림은 리처즈와 오그던의 저술에서는 '의미'의 장에 등장하고, '말의 힘'은 그 다음으로 설명된다. 즉 리처즈와 오그던은 상징과 지시물 사이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 관계라는 것을 밝히고[27] 이러한 상징화의 교묘한 망각 작용을 '말의 힘'에서 폭로한 것이다. 그러나 김기림은 의미 삼각형에서 객관세계와 의식의 관계에 대해 "인과적인 필연적 관계"[28]를 더 강조한다. 삼각형의 두 변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다면 그 기호는 사실의 반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말이 지닌 객관세계와의 연관을 끊고 말이 생각만을 대표한다고 보는 관념론이나 유심론을 비판하고 있다. 리처즈와 오그던의 이론에 대한 창조적 오독이라고 할 정도로 김기림은 말의 의미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역할로서 "객관세계를 지시하며 반영하며 대표하며 대응하는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25) 리처즈·오그던, 앞의 책, 54~55면.
26) 김윤식, 앞의 책.
27) 리처즈·오그던, 앞의 책, 35~37면.
28) 김기림, 앞의 책, 105면.

그렇다고 해서 김기림은 그러한 객관세계에 대한 지시, 반영, 대표, 대응이 전적으로 명징하고 정확하게 언어에 일어난다고 본 것은 아니다. 객관세계에 대한 연관이 의식을 '通告'하면서 주관이 개입하거나 왜곡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림은 언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잘못된 사용과 혼동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 그런 까닭에 그는 객관세계를 정확하게 진술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있어 '사실의 객관적 구조'와 '정(情)적인 요소'를 엄밀하게 구분하고 의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우리의 첫째 관심은 어떻게 정확하게 진실(眞實)을 말할 수가 있나 하는 일에 있어야 한다. 그 일은 다시 두 갈래로 갈린다. 그 하나는 어떻게 우리의 주위의 세계를 똑바로 붙잡아 내느냐 하는 문제다.(중략)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견·의사·상상을 어떻게 효과있게 진실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객관세계에 대한 진술과는 혼동하지 않고, 즉 제가 생각하는 것과 사실의 객관적 구조와를 뒤섞어서 상대편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착란시키지 않도록 분간해서 내 생각은 내 생각으로서 전달할까하는 문제이다.(중략)
>
> 둘째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편의 감정을 저 편에 반응시킬까. 또는 이 편이 의도하는 감정적 반응을 저 편에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겠다.[29]

진실을 말하는 문제에 있어서 김기림은 두 가지를 나누어 보고 있다. 하나는 세계에 대한 정확한 관찰과 파악이고, 둘째는 생각과 상상의 정확한 전달이다. 전자와 후자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이 두 가지가 섞일 때 객관세계에 대한, 즉 사실에 대한 혼돈을 일으키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지시대상과 상징 사이의 느슨한 관계 자체를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김기림은 언어가 사물의 객관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와 더불어 언어가 생각의 주관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라는 이중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언어는 우선적으로 전달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는 점을 확고히 밝히고, 그에 따라 두 가지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첫째는 사실의 객관적 구조를 진술하여 정확하게 진실을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언어의 정서적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의 기능에 따른 이 두 가지 임무는 이론적 체계에 따라 도출된 것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사회 문화적 혼란 속에서 갖게 된 실천적 고민의 반영이라고 보는 것도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선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의사전달과 소통을 중시하는 그의 수사학은 해방 공간에서 언어 과잉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대응하려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30] 해방 이후 남북한의 단독 정부 수립까지 정치적 이념의 대립이 극심했고 사회적 질서가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과학과 과학적 시학에 기반한 언어의 지시성은 이론적 공상에 가까울 수밖에 없었

29) 위의 책, 80면.
30) 박성창, 앞의 논문.

을 것이다. 혼돈의 사회 속에서 남발되는 정치적 언술들은 현재를 지시하기 보다는 미래를 환기시킨다. 그것은 실상을 묘사하기 보다는 희망을 약속하며, 진실을 전달하기 보다는 당파성에 봉사하기 쉽다. 이러한 문제에서 파생된 '宣傳'은 여타의 문장론에서는 다룬 바 없는 새로운 장르이고, 김기림이 독립된 하나의 장으로 다룰 만큼 현대의 말 가운데 비중을 둔 형태였다. 그만큼 김기림은 말의 이론적 문제와 더불어 실천적 방면의 문제도 체계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과학'과 '선전'의 대조가 대표하는 것처럼 김기림은 누가 옳은가 이전에 무엇이 사실인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언어능력으로 상대방을 효율적으로 설득시키는 것이 언어의 두 가지 임무로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의사소통 능력과도 관련되는 것이다.

사실의 객관적 구조에 대한 이해와 정서의 효율적 전달이라는 기준은 김기림이 보다 다양한 말과 글의 형태를 새롭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이전의 문장론과 다르게 김기림은 글의 현대적인 양식과 학문적 분야를 글의 형태에서 다루고 있다. 그 기준이 된 것은 카르납의 이론이었다. 카르납에 기대어 객관세계에 대한 기술과 묘사라는 형태와 주관세계에 대한 표현이라는 형태가 나뉘며, 그 영역에서 인식, 인상, 의사, 의견, 명령, 간청, 감정, 의지 등이 세분화되었다.[31] 그리고 여기에는 기술과 묘사로 대표되는 재현 활동과 표현 활동이 교차하는 중간 지대도 존재한다.

이러한 분류 체계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記述-科學語-이라는 부제가 붙은 과학논문이다. 과학논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목해 볼 것이 세 번째 형태로 등장하는 형이상학이다. 김기림은 과학에 대해 참인 지식의 체계를 기술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과학과 달리 형이상학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여 "거짓진술"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언어의 지시관계에 있어서 사실의 객관적 구조와 관계 맺는 것이 '과학'의 '기술'이라면, 의사의 주관적 세계와 관계 맺는 것이 '형이상학'의 '거짓진술'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문장론신강』에 비트겐슈타인의 이름이 간혹 등장하고 있지만 김기림이 과연 비트겐슈타인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형이상학과 철학이 실재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명제들의 논리적 형식을 보여주는 '의사명제'라고 하는 비트겐슈타인의 진술[32]을 논리학적 측면에서 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가 생각하는 '거짓진술'은 어떠한 측면에서는 이데올로기적인 것에 가깝게 파악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심에서 형이상학과 과학의 구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존 문장론에서도 다뤄지는 문학이나 편지와 일기도 포함되어 있으나 훨씬 다채로운 장르들이 등장함을 볼 수 있다. '假象'과 '典型'이라는 기준에서 '文學'이 다뤄지는 점, 과학논문에 이어 記述의 두 번째 형태로 등장하는 '보고, 기행, 르포르타쥬' 등에서 '르포르타쥬'라는 현

31) 김기림, 앞의 책, 122면.
32) 서광선·정대현 편역, 1980 『비트겐슈타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04면.

대적인 장르가 포함된 점, 신문기사나 라디오 방송과 연설이나 강의·강연과 같은 형식 등이 등장하는 점은 『문장론신강』의 특이성이라고 할 만하다. 비유와 몽타쥬 등과 같은 구체적인 수사학적 방법에 대한 진술도 등장하지만 김기림의 문장론에서 평가해야 하는 부분은 이와 같이 글의 형태면에서 다양한 장르가 인식되고 있다는 측면일 것이다. 기존의 문장론의 틀에서 논의되지 못한 새로운 말과 글의 양식에 대한 고찰에서 김기림의 현실적 감각과 학문적 체계성을 동시에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말과 글에 대한 새로운 종합적인 고찰로 시작하여 과학적 학문을 수용함으로써 객관적인 글과 주관적인 글, 학술적인 글과 실용적인 글의 새로운 장르를 다양하게 포괄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글쓰기 교육의 방도 : 인격과 훈련

종래의 수사학에 대한 김기림의 비판은 수사학에 대한 낡은 교육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루어진다. 그는 지금까지의 수사학과 작문 교육은 소위 주입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낡은 교육 이론의 파생물이라고 비판한다. "주장 수단만을 떼어서 치례시키는, 말과 글의 화장술(化粧術)을 궁리해내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배우는 사람의 머리에 쑤셔넣으려 드는 일이었다."[33]는 것이다. 그러한 교육이론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텅빈 창고"와 같은 것으로 보고, 교육은 그 속에 지식의 조목을 채워넣는 일로 여겨진다고 비판한다. 그에 반해 김기림은 사람의 마음을 성장하는 유기체로 보고 교육이란 그 성장을 돕도록 좋은 영양과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며 기능을 훈련하여 발휘시키도록 보조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라 말과 글에 대한 훈련도 한 人格의 성장과 나란히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말과 글에 대한 훈련도 한낱 혀끝과 손 끝에 잔재주를 배워내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인격(人格) 자체가 그 성장을 따라 그에 정비례해서, 자신의 인격적 능력으로 구비해가는, 자기를 에워싼 세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자기의 생(生)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실현해 가기 위한 생활양식인 것이다.[34]

김기림은 말과 글의 기능을 훈련하여 익히는 것은 기교를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성장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격적 성장이라는 글쓰기 교육론은 얼핏 '文以載道'와 같이 인격의 도야까지 문학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동양의 전통적인 문장론을 연상시키지만 김기

33) 김기림, 앞의 책, 122면.
34) 위의 책, 104~105면.

림이 생각한 인격은 근대적인 이성의 주체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는 객관세계를 인식하고 실천할 줄 아는 근대적인 지성과 "경험된 전체"로서의 情意적 부분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인격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말과 글에 대한 교육은 지성과 정의의 양면을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본 김기림은 무엇보다 인격적 성장의 가치를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김기림의 문장론이 서구적 언어이론의 기능주의적 논의를 소개하고 원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김기림 자신의 구상과 설계하에 나온 것임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김기림이 자신의 문장론 후반부를 실천편이라고 불렀듯이 여타의 이론적 인용이나 주석이 없는 상태에서, 문장론의 실천을 위해 글쓰기의 주체라는 요소를 설정하여 그에 대한 교육적 방도까지 제안하고자 한 것이었다.

김기림이 교육적 방도로서 강조하는 것은 '훈련'이다. 글쓰기에 있어서는 '눈의 훈련'을 강조하고, 글의 해석 즉 읽기에 있어서는 '귀의 훈련'을 강조한다. 우선 '눈의 훈련'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눈으로 보아서 바로 붙잡아 놓은 것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고, "근대의 이른바 관찰의 정신이요 묘사의 정신"이다.[35]

> 항용 작문시간에 아이들은 두가지 훈련을 받기 쉽다. 하나는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훈련이오, 다른 하나는 이미 있어 온 재래의 표현방식 기술방식의 약속을 배워넣는 일이다. 그래서 작문 선생은 글이 좀 미끈하거나 기성 방식을 잘 외워서 꾸민 것에 점수를 많이 주려는 경향이 없지못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달은 언제던지 「밝은 달」이오 눈은 언제던지 「흰 눈」이 된다. 달도 잘 보면 흐린 때도 있는 것이오 눈도 인상파(印象派)의 그림을 기다릴 것도 없이 그림자나 그늘에서는 푸르러 보일 것이오 광선형편을 따라서는 여러가지 빛의 음영(陰影)이 생길 것이다.
>
> 아이들에게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잘 관찰하는 눈부터 훈련하자. 될수만 있으면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눈을 기르자. 그것을 내놓고는 과학도 문학도 없다. (중략)
>
> 관찰은 이렇게 화가의 첫걸음이면서도 문학의 첫걸음인 것이다. 근대과학과 근대문학이 같은 정신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은 여기서 맞아 떨어진다. 그런데 이 관찰의 시선이 밖으로 향할 적과 안으로 향할적의 두 경우가 있다. 하나는 외향적(外向的)이라 하고 다른 하나를 내향적(內向的)이라고 한다. 자기의 외부의 세계를 노려보는 훈련도 필요하려니와 자기의 내부 세계를 노려보는 좋은 마음의 눈도 가져야 할것이다.[36]

위의 글에서 재래의 작문 훈련 방식은 표현과 기술의 약속을 습득하고 암기하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작문 훈련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관찰의 시선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관찰의 시선이 외부의 세계 뿐만 아니라 내부의 세계도 대

35) 위의 책, 124면.
36) 위의 책, 125~126면.

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김기림이 앞서도 다룬 사실적 세계와 정의적 요소에 대한 의식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민한 눈, 달리 말해 "세련된 직관력"은 특별한 선천적인 소질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훈련'이다. 그리고 그 훈련은 감정의 훈련도 수반되어야 하며 타인의 글과 작품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훈련을 통해 "가능성의 집적으로서" 技術이 말의 활동이나 글 쓰는 기술에 배어 붙는 것으로, 마치 교양이 행동과 인격에 배어 드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기술은 훈련을 통하여 인격과 함께 성장하는 것 같다"고 본 김기림은 더 나아가 "전 인간적 인격적 훈련이 글을 위한 훈련의 기초에 있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한다.[37]

인격적 훈련이 미숙한 학생의 글에 나타나는 문제로 '표준화'를 지적한 대목도 흥미롭다. 학생들 글이 비슷해지는 표준화 이유로 김기림은 첫째 글쓰기 훈련이 평균 수준에 있다는 점, 둘째 자신들의 기술과 표현능력에 맞는 정도의 쉬운 것만 취재한다는 점, 셋째 자신의 흥미대로 선택한다는 점을 말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진술과 표현의 두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사람의 내부적 갈등을 도모지 경험하지 못하는" 점을 표준화된 글의 약점으로 지적한다.[38] 결국 김기림이 생각하는 인격적 훈련의 기초에 놓여 있는 글쓰기는 명상과 수양과 같은 도덕적 차원이 아닌, 생각과 언어의 대립과 반발, 객관과 주관의 충돌과 중화를 통한 싸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의 해석에 있어서 '귀의 훈련'이라고 비유된 측면을 살펴보자. 과거의 문장론과 수사학이 말하기나 쓰기에 치우친 데 반해, 듣는 것과 읽는 것을 아울러 '귀의 훈련'이라고 한 측면은 김기림의 새로운 문장론이 성취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심리적 맥락, 인간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 검증을 위한 사실과의 대조—과학과 보고문 뿐만 아니라 가짜 진술인 형이상학, 가상과 형상의 문학 등도 해당한다—를 통해 글을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가면을 썼을 적에는 그것을 벗고서 그실제를 스스로 고백하도록 해야 할 것"[39]이라고 당부하고 있다. '귀의 훈련'도 '맥락'과 '기능'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만, 언어학적 이론을 토대로 김기림이 의사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쓰기의 교육적 가치로 원용한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김기림은 종래의 수사학이나 작문 교과서의 폐단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사실과 의견의 구분

37) 위의 책, 171면.
38) 위의 책, 172면.
39) 위의 책, 209면.

을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았다. 사실적 진술과 정의적 요소는 언어학적인 기능에 대한 고찰을 전제로 하여 도출된 것으로서, 김기림은 그에 따라 종래의 문장론에서 다루지 못한 과학적 진술과 형이상학을 비롯한 다양한 양식과 장르의 글을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문장론을 수필과 같은 양식으로 풀어나간 것이 아니라, 학술적인 글쓰기의 체제를 갖추어 우리말로 학문하기를 실천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김기림의 문장론을 서구 이론의 일방적 나열이라거나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그의 글쓰기 교육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문장론에는 언어학적 이론을 토대로 한 체계적인 구상에 따라 글쓰기론과 인격적 성장의 강조, '눈'과 '귀'의 훈련이라는 교육적 방도가 일관되게 제시되어 있다. 원론적인 논의에 그친 부분이 없지 않으나, 경험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작문이론들에서는 볼 수 없는 글쓰기론의 철학적 구상과 교육적 실천 방향을 설계하였다는 점에 김기림의 문장론이 지닌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학술적 글쓰기, 문체, 수사학, 작문론, 표현, 의사소통, 글쓰기 교육, 훈련

투고일(2009. 11. 16), 심사시작일(2009. 11. 19), 심사완료일(2009. 12. 9)

<Abstract>

Teaching of Writing in *Munjangron-singang*

Kwak, Myoung-suk *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before the Korean War in 1950, Kim Ki-rim attempted to formulate new standards on the diction of the Korean language in his Munjangron-singang (文章論新講) or "New Lecture on Writing." He criticized the traditional form, saying that the old patterns of rhetoric and composition were obsolete. This paper examines not only how Kim developed a modern concept of academic writing and composition, but also discusses his assertions on the new ways of teaching composition.

Based on the linguistic theory which distinguishes fact from opinion, Kim Ki-rim included in his new concept various forms and genres of writings which had not been considered earlier by traditional composition theories. These include scientific thesis, metaphysics, literature, and others. Kim's writings became examples and practical evidence of the new academic writing in the Korean language. Although Kim Ki-rim adopted I. A. Richards's philology and new rhetoric study, he advanced a systematic theory on academic writing and teaching composition which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nd practice in terms of context and interpretation.

Key Words : academic writing, style, rhetoric, theory of composition, expression, communication, teaching of writing, practice.

* Lecturer,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